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

정재영*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jungjy@lgeri.com



I. 글로벌 사회가 메가시티를 주목하는 이유

최근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들에서도 메가시티(Mega Cit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글로벌 거대도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맥킨지, 모니터(Monitor), 보스턴컨설팅그룹(BCG), IBM, 지멘스 등 글로벌 컨설팅사와 IT 기업들도 메가시티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시티가 미래 세상에서 차지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가 메가시티를 주목하는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LG경제연구원 산업기술그룹, 미래연구실 등에서 전자산업, 소비자 트렌드, 웹 2.0 등 연구
- <2020 새로운 미래가 온다>(2010, 공저), <스마트 핫 트렌드 33>(2010, 공저) 등의 저서 및 'Hyper-connection 시대가 오고 있다(2009)', '웹의 진화와 비즈니스의 미래(2009)' 등 보고서

1. 도시화의 가속으로 메가시티는 더욱 증가

도시 인구 및 도시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180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3%만이 도시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47%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9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UN(2010)에 따르면, 오늘날 32억 명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60%인 5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특정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50년대에는 100만 명 이상 거주 도시가 83곳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468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도시의 크기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기회, 일자리, 편의시설 등을 찾아 국내외로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다. 메가시티는 1950년대에 2개, 1975년 3개, 2009년 현재는 21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총 2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신생 메가시티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개도국의 새로운 기회에 목마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롭게 출현하는 이들 신생 메가시티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2025년에는 아시아에 5개, 라틴 아메리카에 2개, 그리고 아프리카에 1개의 메가시티가 추가적으로 생겨날 전망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메가시티라는 동일한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점, 비즈니스 관점 모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인구와 경제력 집중으로 전에 없던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가 나타나고, 새로운 혁신과 시장 기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

메가시티의 정치경제적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메가시티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미 세계 GDP의 1/15 이상이 10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도쿄의 경우, 일본 인구의 약 30%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다. 2009년 현재 일본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쿄라는 단일 도시가 전세계 GDP의 2%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구조가 지식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메가시티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에서는 지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공업

생산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신흥국 메가시티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2030년 인도의 대표적인 IT 도시 뭄바이 지역의 GDP는 2,65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포르투갈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 전체 GDP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표 1〉 전 세계 메가시티 현황

UN(2010.3)의 도시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1개의 메가시티가 존재하며, 세계 전체 도시인구의 9.4%가 이들 메가시티에 살고 있다. 2025년에는 메가시티가 2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 세계 전체인구에 대비 메가시티 인구 비율은 4.7%로, 세계 20명 중 1명은 메가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1975년까지만 해도 세계에는 뉴욕, 도쿄, 멕시코시티 이렇게 3개의 메가시티만 존재했다. 이후 메가시티 수는 급증해 왔는데, 대부분이 개도국에서 나타났다. 오늘날 아시아에 11개, 라틴 아메리카에 4개, 아프리카, 유럽, 북미에 각각 2개의 메가시티가 존재한다. 이 중 11개의 메가시티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2025년에는 아시아에 5개, 라틴 아메리카에 2개, 그리고 아프리카에 1개의 메가시티가 추가적으로 생겨날 전망이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오늘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도쿄의 인구는 2009년 3,65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알제리, 캐나다, 우간다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도쿄 메가시티 지역은 도쿄뿐만 아니라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바와 같은 주변 대도시 및 87개의 크고 작은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대도시 복합지역으로 구성된다.

2009년		순위	2025년	
도시명	인구(백만명)		도시명	인구(백만명)
도쿄, 일본	36.5	1	도쿄, 일본	37.1
델리, 인도	21.7	2	델리, 인도	28.6
상파울로, 브라질	20.0	3	뭄바이, 인도	25.8
뭄바이, 인도	19.7	4	상파울로, 브라질	21.7
멕시코시티, 멕시코	19.3	5	다카, 방글라데시	20.9
뉴욕, 미국	19.3	6	멕시코시티, 멕시코	20.7
상하이, 중국	16.3	7	뉴욕, 미국	20.6
캘커타, 인도	15.3	8	캘커타, 인도	20.1
다카, 방글라데시	14.3	9	상하이, 중국	20.0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3.0	10	카라치, 파키스탄	18.7
카라치, 파키스탄	12.8	11	라고스, 나이지리아	15.8
로스앤젤레스-롱비치, 미국	12.7	12	킨샤사, 콩고	15.0
베이징, 중국	12.2	13	베이징, 중국	15.0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11.8	14	마닐라, 필리핀	14.9
마닐라, 필리핀	11.4	15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3.7
오사카-고베, 일본	11.3	16	로스앤젤레스-롱비치, 미국	13.7
카이로, 이집트	10.9	17	카이로, 이집트	13.5
모스크바, 러시아	10.5	18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12.7
파리, 프랑스	10.4	19	이스탄불, 터키	12.1
이스탄불, 터키	10.4	20	오사카-고베, 일본	11.4
라고스, 나이지리아	10.2	21	센젠(심천), 중국	11.1
		22	충칭(중경), 중국	11.1
		23	광저우(광주)/광둥성, 중국	11.0
		24	파리, 프랑스	10.9
		25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0.8
		26	모스크바, 러시아	10.7
		27	보고타, 콜롬비아(원문에는 오류)	10.5
		28	리마, 페루	10.5
		29	라호르, 파키스탄	10.3

자료: UN(2010.3),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9 Revision'

메가시티의 정치적 힘도 커지고 있다. 과거 도시들은 국가의 하위 행정구역 역할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현대의 많은 메가시티들은 정치, 경제 정책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과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인구 1,200만 명이 거주하는 독일의 다핵도시지역 라인루르(Rhine-Ruhr)는 여러 도시가 연합한 광역경제권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국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바젤-뮐루즈-프라이부르크(Basel-Mulhouse-Freiburg; 스위스, 프랑스, 독일의 도시)와 코펜하겐-말뫼(Copenhagen-Malmö; 덴마크와 스웨덴의 도시) 등이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3. 미래 글로벌 경쟁의 허브 역할

미래 세계에서 메가시티는 혁신과 글로벌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에는 촌락에 비해 여러 생산요소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메가시티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본이 풍부하며, IT 인프라 및 교통, 통신 등 미래 지식경제 시대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다양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과 이를 노리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나 지역본사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오늘날 메가시티들은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글로벌 경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많은 경우 메가시티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접 도시들과 연계되어 광역도시화하는 특징도 보인다. 인접한 여러 도시들이 연결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를 형성하기도 하고, 서울과 같이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를 거느린 대규모의 수도권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기존 도시들의 경우, 내부의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꾀하기도 한다. 상해를 거대 경제도시로 발전시킨 푸둥 지구 개발, 록본기 힐즈나 오모데산도 힐즈 등의 도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가시티들은 도시 간 경쟁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특화 산업, 비즈니스 및 주거 환경 개선, 나아가 차별적인 스토리, 특색 있는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오늘날 IT의 비약적 발전은 메가시티의 거대한 규모와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비효율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상호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IT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당면 문제는 물론 문제의 근원까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혁신 및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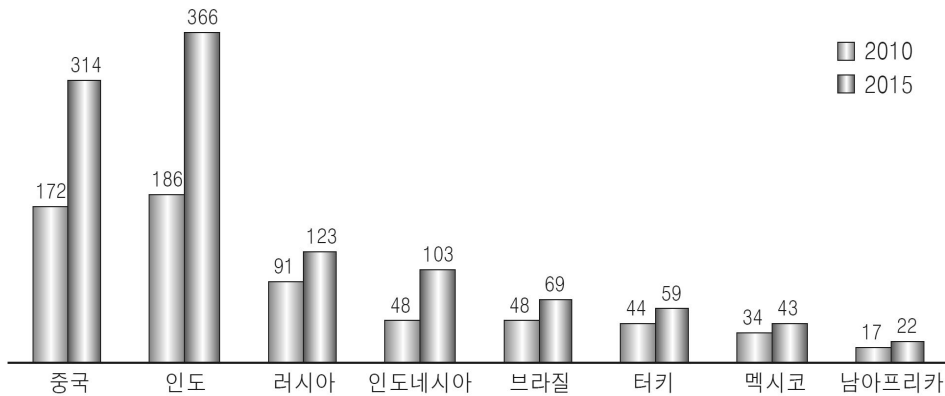
II. 글로벌 메가시티의 미래 지형도

이처럼 메가시티의 증가는 단순한 도시화의 확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메가시티는 국가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으며, 국제간 교역과 이동의 요충지로서 국부의 증대에 기여한다. 천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 수많은 기업들, 각종 인프라, 행정서비스 등이 한데 어우러진 생태계로서 독자적 발전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메가시티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 확보 경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메가시티들의 미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이다. 개도국과 선진국 메가시티의 미래 지형을 예상해본다.

1. 개도국 메가시티의 미래

가. 개도국 메가시티의 주역들

개도국 메가시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까? 앞으로의 메가시티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미래 메가시티의 거주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금 보다 높은 소득과 생활수준을 갖춘 중산층 소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은 정체된 반면, 개도국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산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개도국 메가시티에 첨단 IT, 금융, 제조업에 이르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은 더욱 무게를 갖는다. 특히 중산층 증가는 중국과 인도에서 두드러진다. 글로벌 컨설팅사 BCG(2010)에 따르면, 2010년~2015년간 3억 2,000만 명의 새로운 중산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년 내 개도국 메가시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상당수의 중산층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연소득 5천 달러 이상 기준

* 러시아, 브라질, 터키, 멕시코, 남아프리카는 연소득 1만 달러 이상 기준

자료 : BCG(2010.9), 'Winning in Emerging-Market Cities'

[그림 1] 개도국 도시들의 중산층 인구 전망(백만 명)

한편 메가시티의 새로운 주역으로 여성인력, 여성소비자들도 주목 받게 될 것이다. 컨설팅사 부즈앤컴퍼니(Booz&Company, 2010)에 따르면, 'The Third Billion(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억압된 상태에 머물러 있던 후발개도국 여성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용어)으로 불리는 새로운 10억 명의 개도국 여성들이 개도국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은 이들 여성들은, 메가시티의 로컬 및 글로벌 기업의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성 중심적 전통이 강한 개도국의 문화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들은 경제주체로서, 시민으로서 개도국의 미래 메가시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나. 고성장으로 새로운 메가시티 속속 등장

중간 규모의 도시가 메가시티로 성장하면서 경제, 정치의 새로운 거점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신흥국 메가시티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상업과 같은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주변의 위성도시를 거느리는 인구 500만~1,000만 미만의 개도국 도시들은 새로운 메가시티 후보로서 혹은 메가시티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주변의 중소도시나 촌락으로부터 새로운 거주자들이 지속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도농 간 격차가 큰 개도국에서는 보다 나은 직장 and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들 새로운 거주자들 중 상당수는 메가시티의 새로운 빈민

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더 저렴한 방식으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자 할 것이다. 첨단 IT와 친환경 기술을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메가시티를 건설하면서 와해성 혁신이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비용 첨단, 친환경 기술들은 역으로 선진지역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도시 운영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선진국 메가시티에서는 이러한 저비용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충분하다. 이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역혁신(Reverse Innovation)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개도국을 겨냥한 GE의 저가형 의료기기가 단순한 기능 덕분에 선진국 니치마켓에서도 성공한 바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통신, 주거 등에서 막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개도국에서는 기존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 신규 건설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도국 메가시티에 더 많은 중산층 소비자들이 나타나는 경우, 주거나 엔터테인먼트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진일 보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 중국의 메가시티 전략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도시 인구는 2009년 말 현재 6억 2,000만 명이다. 이는 미국 인구의 2배, EU 회원국 전체의 인구보다도 1.25배가 더 많은 수치다. 도시화율은 현재 46%이며,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2011년~2015년 동안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까지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른 도시화 및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중국의 메가시티는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 두 곳에서, 2025년에는 총 8 곳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톈진, 선전, 우한, 충칭, 청두, 광저우 등이 추가로 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의 메가시티 육성 전략은 명확하다.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철저한 계획과 기능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메가시티 권역이 다른 국가나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 및 인접 광둥(廣東)성을 포함하는 주장강 삼각주 메가시티 지역의 경쟁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 전체라고 한다. 광둥성 정부는 작년 ‘주장강 삼각주 개혁발전계획’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GDP를 따라잡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9년 6월 24일자 참조).

라. 인도의 도시화와 메가시티

인도의 도시거주 인구는 2008년 3억 5,000만 명이었으며, 2030년에는 5억 9,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의 도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30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68개, 400만 명 이상은 13개,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6개에 달할 것이다. 특히 뭄바이(Mumbai)와 델리(Delhi)는 인구 규모 기준으로 2030년 세계 5대 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도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편익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는 유년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년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뭄바이와 같은 인도의 메가시티들이 미래의 인도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MGI(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인도의 도시들은 인도 전체 일자리의 70%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창출하면서, 1인당 소득을 4배 가량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위 70개 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2억 명의 촌락 거주자들이 도시화의 직접적인 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도의 ‘나비 뭄바이(Navi Mumbai)’ 프로젝트>

인도는 뭄바이로부터 약 20~3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 지역에 새로운 계획도시 ‘나비 뭄바이’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나비는 힌두어로 새롭다는 뜻으로, 뭄바이가 IT 중심지였다면, 나비 뭄바이는 중국의 상하이로 능가하는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IT에 강점을 가진 뭄바이와 금융 중심지인 나비 뭄바이 간 시너지를 통해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012년까지 국제 수준의 학교, 병원, 호텔만 2,000여 곳이 들어설 전망이며, 우리 돈으로 총 23조원을 투입해 공항, 항만, 경제특구, 비즈니스 센터, 주거, 편의 시설 등 미래 지식경제 시대의 혁신과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시설 및 인프라 건설이 단행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뭄바이의 인구를 분산 수용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나비 뭄바이 프로젝트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인도의 느린 행정절차 등으로 지지부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뭄바이를 상하이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최근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도로, 철도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인프라 건설도 빨라지고 있다.

2. 선진국 메가시티의 미래

가. 늘어가는 선진국 메가시티

먼저 미래의 선진국 메가시티에서는 고령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선진 지역의 고령화는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출산을 또한 저조해 인구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메가시티인 서울(UN(2010)의 자료에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메가시티로 분류되지 않음)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6만 6,000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 20% 즉 다섯 명 중 1명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지역이 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도시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복합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록본기 힐스’에서는 주거, 상업, 녹지, 편의시설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도시 내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도시를 리디자인(Redesign)해야 하는 요구가 미래 선진국 메가시티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이다.

한편 Y 세대 등의 새로운 세대들이 메가시티를 이끄는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미국의 경우, Y 세대들은 2015년 인력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인구집단은 이전의 세대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I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으로 여기며, 자신의 일 외에 외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미래 메가시티의 주요 납세자로서 고령인구 부양 부담과 관련해 세대간 대립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기도 한다.

나. 해외로부터의 이민도 증가

미래 메가시티에는 물리적인 공간 위에 온라인 가상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삶의 공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여론 형성과 문제 해결 방식, 정치 과정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실시간으로 도시 운영의 효율을 개선하고, 즉각적으로 합의된 여론을 통해 도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영국의 FixMyStreet.com에서는 시민들이 낙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

을 나눈다. 지역의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이러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건의 및 처리하는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메가시티에는 세계 각지로부터의 이민도 늘어날 것이다. 개도국의 고급인력들은 글로벌 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여들 것이다. 특히 해외경험을 선호하는 Y세대 인력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한편 저임 비숙련 인력들도 메가시티의 제조,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찾아 이주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남미의 히스패닉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 히스패닉 인구는 이미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의 지위를 넘어서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약 4,700만 명이며, 2020년에는 약 6,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 이민, 유학 등의 여러 이유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미래 메가시티에는 문화, 가치, 종교, 라이프스타일 등이 혼재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반면 다양성 증대로 문화나 여가, 음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뒤집어보면 이러한 새로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아닐까.

다.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2025년까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메가시티가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선진국 메가시티들은 미래 지식경제 시대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서비스 혁신에 주력할 전망이다. 여기에 친환경 기술과 IT 융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메가시티로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BM은 ‘Smarter City’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다. IT 컨버전스 혹은 디지털화(Instrumentation)를 통해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사물간 통신(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자동차, 도로, 인프라 등 모든 사물이 상호연결(Interconnection)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지능화(Intelligence)화 된다는 것이 IBM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RFID태그와 센서를 도시의 각종 인프라에 부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정보나 유지보수 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서 모인 데이터들을 다른 여러 인프라 및 도시 서비스 정보와 연계해 최적화되고 지능화된 방식으로 도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맥킨지(2010)는 IT 진보에 따른 10대 비즈니스 트렌드 중 하나로 공공사업

혁신과정에서 IT의 역할 확대를 꼽았다. 실제로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 등은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있다. 자동차에 센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통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배수시설에 센서를 설치하여 오염 및 누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물 사용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메가시티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수도권 메가시티 파괴와 주변 권역을 친환경적이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약 6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도 런던권 개발을 위해 ‘대런던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GDP의 75% 이상을 창출하는 100대 도시 권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etroNa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III. 메가시티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메가시티는 오늘날 도시화라는 거대한 트렌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사회경제적 현상이다. 앞으로의 기술 발달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시티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정보와 IT, 지식 등이 미래 메가시티의 시너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메가시티는 도시를 넘어, 국가 경제권의 상징이나 국력을 대변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베이징, 상해가 없는 중국을 상상할 수 없고, 뉴욕 없는 미국을 떠올리기 어렵다.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서, 메가시티간의 글로벌 경쟁은 오늘날 국가 간 경쟁 못지않은 양상으로 펼쳐질 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의 세상에서 메가시티가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것은 쉽게 상상해볼 수 있다. 메가시티는 미래 세상에 다음의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할 것이다.

먼저 미래의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터로서 메가시티의 역할이 기대된다. 실제로 메가시티는 우리가 먼 미래로 생각했던 기술이나 제품의 구현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메가시티에서는 높은 초기개발 비용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혁신적인 제품에 호의적인 실험적인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때문이다. BMW는 2013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메가시티용 전기차(MCV, Mega City Vehicle)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차량은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며, CFRP(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를 적용하여 철보다 강하면서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차체를 가지는 등 혁신적 기술을 대거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메가시티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첨단 기술과 거대한 규모,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도 주목해야 한다. 더욱 치열해져가는 경쟁 속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큰 인구집단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가 미래 메가시티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이다. 가족의 해체와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고통 받는 고령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층,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주한 타 문화의 이방인들을 융화시키는 일은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를 만드는 전제가 될 것이다. 포용과 다양성의 존중 속에서 창의력과 참여 등 지식경제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와 비즈니스가 결합한 HVC(Hybrid Value Chain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2010)에 따르면, HVC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미래 메가시티에서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들의 성장과 변신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컨설팅사 BCG는 이러한 도시들을 클러스터 캐피탈(Cluster Capitals), 스페셜리스트 허브(Specialist Hubs), 지평선 타운(Horizon Towns) 등으로 구분한다. 클러스터 캐피탈은 인구 500만~1,000만 명 사이의 무역 중심도시로 중국의 창사(Changsha) 등이 있다. 스페셜리스트 허브는 인구 100만~500만 명 사이의 천연자원, 산업 허브 도시로 인도의 아메다바드(Ahmedabad) 등을 들 수 있다. 지평선 타운은 개도국에 분포된 수많은 소도시를 의미한다. 물론 이들 도시들은 메가시티에 비해 통신, 물류, 행정서비스 등이 부족하며, 지리적으로도 파편화되어 있다. 더구나 로컬의 전통적 특성이 강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도시들의 성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 장기적 시각에서 이들 중소 도시의 새로운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DI**

참고문헌

- 동아일보(2009.6.24.인터넷판), '中, 질주하는 초광역경제권'
- BCG(2010.9), 'Winning in Emerging-Market Cities'
- Booz&Company(2010.5), 'The Third Billion'
- HBR(2010.9), 'A New Alliance for Global Change'
- IBM(2009.12), 'A vision of smarter cities'
- McKinsey Quarterly(2010.8), 'Clouds, big data, and smart assets: Ten tech-enabled business trends to watch'
- MGI(2010.4), 'India' s urban awakening'
- MGI(2008.3), 'Preparing for China' s urban billion'
- UN(2010.3),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9 Revision'